

사설

유례없는 징계논란, 회칙 뒤에 숨지 말길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문정식 회장이 자리하던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의원직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직이 총학 권예성 부회장으로 교체됐다. 위원의 자격 상실이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구성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임기 내 이어진 일련의 불통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캠 총학은 달라진 모습 없이 논란에 스스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대평의 자격 상실 사유는 휴학 및 졸업,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이다. 우리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문 회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유력해 보인다. 총학생회장의 징계처분은 그동안 학생사회에서 유례없는 일이며,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당사자인 문 회장에 더불어 위원직을 대체하고 있는 권 부회장 역시 해당

사안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권 부회장은 “총선과 더불어 개인적인 학업으로 빠르게 답변하지 못한다”며 “당사자와 연락하라”는 태도로 직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문 회장은 우리신문의 취재 요청에 규정관리시스템〈개인정보침해 및 유출 대응 시행세칙〉제2장을 보내며 “관련 규정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총학 회장과 부회장에서 그치지 않는다. 총학을 견제해야 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위원들은 최근 일고 있는 논란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총학 회장단이 어떠한 내용도 공유하거나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 회장은 중운위원에게 “직무 정지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평의와 등심위 교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총학생회칙에는 사퇴나 탄핵

외의 이유로 해임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만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으로 학생 신분이 정지된 것이라면 이는 총학생회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회칙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다만 문 회장이 직무 정지만을 언급한 점이 이 일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

중운위원에게 기회는 한 번 더 있었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들어갈 5인의 학생 위원으로 국제캠 학생 대표에 권 부회장이 위원으로 추천됐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이 명시하는 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심의 의결 기구의 의장이 된다. 이전까지 모든 학생 대표를 문 회장이 수행했기에 중운위원은 위원이 갑자기 교체된 이유를 물었어야 했다. 단과대학 대표직이 총학을 견제하는

자리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학생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 직위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유례없는 일이 많다. 취재 과정에서 총학생회장이 징계를 받는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총학생회칙에 징계 관련 조항이 없는 현 상황도 문제다. 다만, 징계 관련 조항이 없는 것은 총학생회장 임기 중 징계를 받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징계 관련 조항 부재가 절대로 총학생회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일 문 회장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총학생회칙을 근거로 현재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상황을 회피하기 급급한 거라면 당장 멈춰 주길 바란다.

세시봉

‘공영’ 방송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한국방송공사(KBS)에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칼바람이 불었다.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전면 교체되고, 시사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지난 4년 동안 ‘KBS 뉴스9’를 진행한 이소정 앵커는 방송 전날 하차 통보를 받아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뉴스를 떠났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방송사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권 100%를 갖는 KBS의 기형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정부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쓸쓸한 사실이지만, 진영과 관계 없이 역대 정부가 KBS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권 교체로 인한 KBS의 변화 또한 자연스레 예상됐다.

하지만 지금 KBS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급작스러운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돌연 폐지 등의 과격한 변화는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KBS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폐지 결정이 안타깝다. 더 라이브는 최근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13일부터 예고 없이 결방됐고 결국 폐지 통보를 받았다. 공영방송으로서 폐지 예고로 시청자와 작별 인사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일이었다.

KBS는 ‘더 라이브’ 폐지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무시했다. ‘더 라이브’는 사실상 폐지됐지만, 형식상 주간 대체 편성 후 12월 중순 공식 폐지된다. 제작진은 이에 프로그램 폐지 시 한 달 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하나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선 프리랜서를 포함한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데, 공영방송인 KBS는 이들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든 것이다.

KBS 박민 사장은 취임 후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 라이브’ 폐지 모습만 봐도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모습이다. 공영방송의 신뢰는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 식당의 본질을 찾아

‘학생’을 위한 식당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학습만큼이나 대학생에게 밥은 중요하다. 식사 시간은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지친 하루의 낙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대학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주된 공간은 학생 식당이다. 값이 저렴해서, 공간이 넉넉지 않아서 등 학생 식당을 찾는 학생들의 사정은 다양하다. 하지만 국제캠 학생은 언젠가부터 찝찝한 마음으로 무거운 한숨을 들고 있다. 잠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식사 시간에 신경 쓸 거리가 하나 더 늘어버린 것이다.

지금의 국제캠 학생 식당은 가격·품질·위생 중 그 무엇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서 기대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돌아왔다. 품질 논란은 둘째

치고 계속된 이물질 논란으로 학생에게 익숙하고 편안해야 할 학생 식당은 이제 멀리하고 싶은 공간이 됐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관계자의 태도는 학생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명히 하는 게 당연하다. 책임을 미루고 꼬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생과 관련된 문제라면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학교다. 그리고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업체는 그 누구보다 엄격해져야 한다.

학생 식당을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학생’ 식당이라는 그 명칭의 의미도 얽어져 버렸다. 학생 식당이 왜 ‘학생’ 식당인지 그 본질을 고려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였을 수도 있다. 학생을 위한다는 학생 식당 제1의 목적이 뒷전이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학생을 위한 공간일 수 없다.



만평 학생 식당은 더 이상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